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주요도시 중심가와 사찰 인근에 봉축연등이 걸리기 시작했다. 부처님 탄신을 널리 알리고 봉축분위기를 돋구는 이 연등이 내 직장에 걸린다면? 불자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연등을 걸 수 있는 직장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직장과 회사주변에 나름대로의 발원을 담은 봉축연등을 디는 신행단체가 늘고 있다.

“우리 직장에 연등 걸어요”

경불회, 철불협 등 ‘자비·지혜의 등’ 달기 확산 등 만들며 회원간 친분 불심 돈독, 자부심 키워



직장에 걸리는 연등은 직장내 불자들의 자부심을 키울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친분들을 두텁게 하는 고리가 된다. 사진은 조방연등회 회원들이 거리에 등을 달는 모습

서울 성북경찰서 법당에서는 요즘 봉축연등을 만드는 경찰불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부처님오신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성북경찰서불교회 회원들은 법당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연등을 만들면서 봉축행사를 점검하곤 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등은 법당은 물론 성북경찰서 관내에 내걸린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 주변에도 봉축등을 내걸어 부처님오신날을 알린다.

전국 경찰서와 주변에도 ‘자비·지혜의 등’이 내걸린다. 지난해에는 20여 경찰서에 걸렸지만, 올해에는 대한불교경승단과 경찰불교회의 주도로 100여 관서에 ‘자비·지혜의 등’이 걸릴 예정이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산하 45개 지회는 불자 교도관과 재소자들이 직접 ‘참회의 등’을 만들어 교도소 내를 장엄한다. 교화위원님과 교도소 불자회, 재소자불자들의 염원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교도소 내의 연등달기는 20여년을 이어온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지금은 전국 50여 교정기관 가운데 연등을 달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의 발원주제는 ‘무사고’. 철불협은 소속 22개 직장단체들은 5월초부터 주요 역사와 소속기관에 ‘무사고 기원등’을 건다. 성북승사사무소 법우회와 부인들의 모임인 승만부인회는 성북역사와 주변거리, 가정에 ‘축제의 등’을 달다.

40여 병원불자회로 구성된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원내와 주변, 병실을 ‘쾌유 기원 연등’으로 장엄한다. 서울 은평·동작·성북구청, 마산시청, 구미시청 불자회 등도 5월초 봉축등을 걸 예정이다.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이 직장주변에 다는 연등은 봉축위원회와 지역사민연합회가 주도해 내거는 연등 보다 불심이 없거나 수직으로 열세다. 하지만 직장이라는 장소에 봉축등이 걸리는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

직장에 걸리는 연등은 직장내 불자회 회원들과 불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효과와 ‘무명을 밝히는’ 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 또한 불자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기회다. 연등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불자회 회원들간 친분과 불심을 돈독히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자이면서도 불자회가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서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연등을 보고 가입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연등을 내걸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인들을 의식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상하 직급이 분명한 직장에서 대표자가 다른 종교인일 때는 연등을 거는 일은 자리까지 내놓는 ‘모험’ 수준이다.

정전연 철불협 포교위원장은 “다른 종교인들과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공감할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면 그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 적절한 테마를 연등과 현수막에 새겨넣어 모두가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ews.com

우리단체 이사람



김호규

정부중앙청사불자연합회 총무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중앙인사위원회 불자회를 아우르는 정부중앙청사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중앙청사불자련)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호규 총무(45·행정자치부 의정팀·사진). 98년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총무처에서 행정자치부로 자리를 옮긴 뒤 불자회 활동을 시작한 느낌이 불자다. 그런데도 중앙청사불자련 총무를 맡은 것은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때

으며 밝게 웃을 회원들을 떠올리며 기꺼이 경구를 준비한다. 요즘엔 업무가 너무 바빠서 보내지 못했다며 회원들에게 미안하다. “직장에서 마음이 산란하거나 일에 지칠 때 가까운 사람을 찾아 좌선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럴 때면 불교가 참가깝게 느껴집니다. 다른 불자들도 직장에서 힘이 들거나 인상 지푸릴 일이 있을 때 불교에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요즘

‘불자회’ 활동을 통해 고마운 분들과 부처님법을 만났으니 참 얻은게 많아요. 제가 받은 공덕을 회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으나마 회원들에게 좋은 경구를 보내게 됐어요. 회원들로부터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김호규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각종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좀처럼 여유가 나지 않는 바쁜 일과를 보낸다. 그러나 출근 후 자리에 앉으면 회원들에게 ‘오늘의 경구(經句)’ 이메일을 보내는 일부터 시작한다. 집에서 미리 경구를 준비해오는 날은 그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는 경구를 읽

‘오늘의 경구’ 보내기 일상화 불자회 가입, 결성 등에 전력

그는 요즘 감사원불자회의 중앙청사불자련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불자모임이 없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불자회 결성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부종합청사내에서 법회장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김호규는 밤시간을 이용해 대학을 다니면서도 행정자치부 불심회 총무를 맡기도 했다. 불심회 회원들이 한평생 늘여갈 때 보람을 느꼈다.

“우리 가족은 모두가 매주 일요일이면 절에 나갑니다. 저는 부인과 일산 여래사를, 고2년인 두 아이는 서울 조계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아이들도 절에 다니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대가 만들어져 좋습니다.”

김호규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각종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좀처럼 여유가 나지 않는 바쁜 일과를 보낸다. 그러나 출근 후 자리에 앉으면 회원들에게 ‘오늘의 경구(經句)’ 이메일을 보내는 일부터 시작한다. 집에서 미리 경구를 준비해오는 날은 그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는 경구를 읽

박봉영 기자

국회 정각선원 10주년 법회 봉행

국회 본관에 위치한 정각선원이 4월 26일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정각회(회장 이용희)와 국회직원신도회(회장 이진섭)는 이날 ‘해국 스님 초청 참선 법회’를 봉행해 정각선원의 10주년 의미를 되새겼다(사진).

이날 서울 수호사 주지 무구 스님을 비롯해 권익현 전 정각회장, 이용희 회장, 강창일 부회장, 이계진 주호영 이시종 의원 등 정각회 회원들과 김문희 이범희 전 국회의원신도회장 등 170여 명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종주 석조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은 “우리가 현재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참선을 시작해야 한다”며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문을 시작했다. 이어 스님은 “현실의 육신과 욕망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자리 그늘진 곳을 잘 살펴야 한다”며 “국회 정각회 의원들부터 참선을 통해 마음자리를 밝히고 나아가 국회를 정화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용희 정각회장은 “정각선원이 만인의 법당으로 국민의 원력을 담아내고 국가 상생으로 나아가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우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이 안홍준 국회 간사장의 발원문 낭독

과 서울 대원정사 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이날 10주년 개원법회는 회향했다.

김강진 기자

공불련, 중국 성지순례

7월 26~31일, 돈황 일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세호, 이하 공불련)는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돈황 일대로 제4회 해외성지순례를 떠난다.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례에서는 신라 해조 스님의 <왕요전축곡전>이 발견된 막고굴을 비롯해 양관 실크로드 유적지와 타클라마칸 사막, 돈황고성, 명사산, 천불동, 화염산 등지를 참배한다. 공불련은 45명 내외의 참가 접수를 받고 있다. (02)739-1080 박봉영 기자

성남시청 불자회 창립한다

5월 7일 창립법회

경기도 성남시청에도 공무원불자회가 생긴다.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5월 7일 오후 3시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창립을 준비해오다가 중지된 바 있는 성남시청 공무원불자회는 정토사 주지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상선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관계자 등이 4월중 두차례의 준

비모임을 열고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창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공불련이 창립을 위한 행정지원에 나서 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창립하게 됐다. 초대회장은 발기인모임을 주도했던 김인규 건설교통국장이 선출됐으며, 김병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이 부회장을 맡았다. 감사에는 손순구 도시주택국 가로정비과장과 김우태 분당보건소장이 선임됐다. 김인규 초대회장은 “지역사민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쌓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FAX 02)737-0697 ● 광고가격 1Box(4.4×4.4) 4만원 ● 게재번호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사찰구함 부산시내 6억정도 011-9678-2340	행자모심 ▷ 고졸이상 만40세 미만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 후원함 02)917-3363 (정릉)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719-0408	공양주보살님 (급)구합니다 경남 함천 해인사 부근 대한불교조계종 010-9456-849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50~60대) 내절처럼 운영하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155-812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부천시지역 011-781-3513	내절처럼 잘 보살피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영천 054)338-8202 011-379-4442
기도에 정진하고 있는 50대 비구의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시해 주실 분 011-9601-6676	공양주 보살님과 스님이 되고자 체계적 공부를 원하는 남녀 행자 모십니다 ▷ 경북 구미 054)973-8415 010-3131-109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전통사찰, 총남) 010-2202-8090	부전스님 모십니다 ▷ 부산 051)542-4848 011-551-1719	부전스님 자리 구합니다. 각종 불공의식, 철학 가능. 절 운영 경험있음 (비구 50세) 031)708-2287	조계종 전통사찰입니다. 몸이 아픈관계로 주지직을 수행하지 못해 본 사찰 주지로 모시게 되오니 인연되시는 분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010-3174-3869	부산 포교원 안내 57평. 합 5300만원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및 행자(여) 스님 모십니다 ▷ 도심속 포교원 010-8674-4484 011-9193-2351	43세 비구입니다 수도권지역에 부전자리 구합니다 011-9167-01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 충북 제천 043)643-4733 019-540-745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서울 북한산성 011-9350-3216	수행하는 스님 한분에게 토굴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덕유산 자락 055)943-7122 010-2721-596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지리산 011-483-56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4)834-69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숙식제공 월 보시금 100만원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 043)833-7789	창원 중심지역 불교용품점 ● 전세 500 월세 30만 ● 평수 12평 1층 ● 물품대 일체 3천만원 (절충가능) 055)265-7998 010-9662-7074	